

③ 靑砂器胎壺에 있어서 梨大所藏의 印花文壺는 外壺는 다른 白磁胎壺보다 조금 평평하게 넓은 內壺는 그 형태가 전연同一하다. 더수공미술관 소장의 無其胎壺의 一例를 除外하고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靑砂器나 白磁胎紅에 있어서 是 배목같이 안까지 미치지 끼워 박지 아니하고 길쭉하게 또는 좁은 근듯 세모에 구멍을 뚫은 넓적한것을 모든 향아리 肩部에 걸으므로 붙여 아담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前者의 手法도 같은 德壽宮所藏의 逸名靑砂器印花文胎壺와 後考로 미룬 靑砂器기 靑文胎壺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世宗實錄卷二四、世宗六年二月庚申條。

⑤ 德壽宮美術館原帳의 類例를 보면 出所未詳인것은 반드시 「傳」字를 記入하고 不明인것은 勿論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 原帳엔 分明히 表題(靑砂器는 本人이 고쳐 쓴것)와 같이 記錄된 것을 보면 發掘當時 어떤 根據品이 있었는것이라 생각된다.

⑥ 現在 西三陵城內이며 行政區域은 一九三九年에도 現在와 같이 高陽郡元堂面과 碧蹄面이 區分되어 있었음.

桐華寺의 在銘香爐 二座

鄭 明 鎬

羅代 五岳의 하나인 八公山에는 많은 遺物遺蹟이 散在하고 있다. 一九六三年 七月末 桐華寺를 찾을機會가 있어 寺寶中에서 在銘香爐 二座를 注目하였음으로 紹介하여 둔다.

一、高杯型 在銘銀入絲 香壇

典型的인 高杯型 香爐로서 全表面에 銀入絲가 있으며 身部와 臺座部로 兩分되어 上下를 柄釘이 아닌 鑄接으로 固定시키고 있다. 形態로서는 從來에 紹介된(註) 香爐보다 是 鈍厚하면서 比率이 均整하며 優麗하다. 甬形의 爐身에는 廣幅의 口緣이 있고 身部下부에 받침形의 段

과 돌딩과 낮은 突起받침이 있다.

臺部로서는 副緣形의 一段받침과 圓帶 밑에 柱形이 圓盤型으로 緩慢히 擴大되어 曲形의 基部를 이루었다. 그리고 左右兩側에 釘孔이 뚫려 있음으로 보아 固定되었던것 같다. 入絲는 保存이 良好한데 口緣에는 寶相唐草와 雲文과 雷文이 둘러 있다. 身部에는 卍字形 雷文이 全表面에 메구였으며 그 밑에 蓮花重瓣文과 如意頭文 등이 있다. 臺座에는 위부터 唐草文 蓮花文 如意頭文이 있으며 圓盤上面에는 寶相唐草가 있고 다시 그 밑에 蓮唐草와 文으로 裝飾되었다.

銘文은 身部口緣裏面에 楷書로 陰刻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順治十年癸巳二月大丘八公山桐華寺上 銀絲大施主兼自匠司梁尹龍兩主化主禪宗大禪師道悟一造佛法僧三坐』

이 銘文。로서 年代(一六五三年 朝鮮孝宗四年)와 供納處가 確實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入絲와 文樣의 時代의 特色을 살필수가 있다.

二、鼎型 在銘陽刻文 香爐

三獸足이 달린 鼎型 香爐로서 器表 全面에 陽刻彫文이 있다. 口緣



에는 仰蓮花文이 頸部에 寶相唐草가 爐身에 覆單蓮瓣紋 및 雲山紋 寶相唐草文 등이 둘러 있다. 底面에도 唐草文 蓮花文 菊花文이 보인다. 그리고 各文樣의 限界를 明確하기 위하여 條線 櫛文 珠文의 順으로 配置되어 있다. 銘文은 完全히 判讀을 못하였으나 낮은 細刻의 楷書로서 左向右回로 口緣面에 있다.

八公山寶賢○施主催沮勿麻主台 □□□□□□坐低德非公謙

製作年代는 文樣에서 보아 大體로 前述한 高杯型、香爐와 同代의 것으로 推定되는 듯하다 獸足(一足은 缺)의 彫刻 亦是 매우 精銳하고 退化된 彫法을 보이고 있다. 本來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傳한다.

寸數는 다음과 같다
高杯形 香碗

總高二八·六cm 身高一四cm 內徑二四cm 口周緣徑三三·八cm 口緣幅五·八cm 身深一三·五cm 臺座高一四·六cm 臺圓盤徑二〇·三cm。

鼎型陽刻文香爐

總高一七·五cm 口徑一三·三cm 身高九cm 身幅一七cm 足高六·五cm。

(註) 佛教學報 第一輯 「高麗青銅銀入絲香院의 研究」에 紹介되어 있는 表 忠寺香院의 形式과 類似하다.

高 裕 燮 君

上野直昭

私がヨーロッパから歸つて、京城大學へ赴任したのが、開學に一年後れて、昭和二年の四月であつた、前年の大正十五年に、大學は開學發足してゐるので、學生は己に二回目に入學であり、其内に高裕燮君があつた、初めて君とあつたのは、私の赴任後間もなく、教官學生の合同の會で水原へ一

日日返り、の遊覽をしたことがある、其時新入の學生であつた君に紹介されたときで、其時己に中々の秀才である由をきかされたし、又美學を専攻するつもりといふことであつた。爾來三年間は學生とて、君の卒業論文を審査したが、これをすまずと、私は再び渡歐することになつて、六年の秋再び京城にもどつたときには、君は己に開城の博物館長になつてゐたのではなかつたか。其處で君は非常に勉強したらしく、塔に關する著書を貰つた記憶がある。京城大學に於ける半島生れの學生は優秀なのが少くなかつたやうであるが、高君は特にすぐれてゐたのではなかつたか。己に三十年き前のこととなるし、私も老いたので、多くは忘れて了つたが、開城の博物館に君を訪ぬたことも一度あつたことを想い出すのみで、どんな話をしたかも忘れて了つた私が京城を引上げて大阪にゐたある時、高君が文部省で行はれた學術の發表會に出張して來て、君の受けもつた發表の講演が長くなり司會者が時間切れを宣告しても、もう少しもう少しと言ひつ、話しつづけたといふのを誰れかに傳へ聞いた、ことがあつたこの時の往路に、自家製らしい甘いものを持って來てくれ、己に物資殊に甘味の不足してゐた頃ではあり、大に感謝したことであつた。

一般に、そんな逸話を作る方の人ではなく、地味な學者風の人ではあり、私との接觸も左程深まることもなく、こつ／＼と眞面目に勉強して居た風であるから、さて想出となるとこれといふ程の種子もない。突然死去の電報を受けて然としたことであつたが、後に勉強し過ぎといふ話もきいて、思ひあたる點もないが、惜しい人であつた。

(二二九、六、一四)

又玄 高先生の二十周忌를 맞이하여

秦 弘 燮

今年六月二十六日は又玄高裕燮先生の二十周忌日이다。一九四四年